

닭고기 군납제도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방송사, 일간지, 전문지 등에 발송

감사원이 지난 7월 22일 공개한 '육군본부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최소 1년 이상 지난 닭고기 수십 톤이 육군에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본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업자들이 허술한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 전국 단위의 도계시설에서 닭고기가 대량으로 생산돼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에 반해 46년전에 제정한 규정으로 비롯해 군납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다수의 닭고기 군납조합들은 자체적으로 도계장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납 수수료 확보 등 군납지위 확보를 위해 외부 유통업자와 연계하여 닭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자의 경우 닭고기 가격 폭락시 닭고기를 구매하여 냉동 창고에 대량으로 비축한 뒤 이를 군납조합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하다 보니 장기간 보관된 불량 닭고기가 납품되게 되는 것이다.

본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 자료를 작성, 지난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사·일간지·전문지 등 언론사에 배포, 이제는 현실에 맞게 닭고기 군납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오는 8월 7일까지 본회로 제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회원사에서는 본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찬반의견(구체적인 사유와 관련자료 포함)을 오는 8월 7일까지 본회로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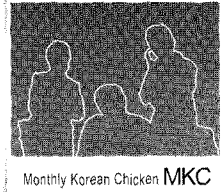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하여 입법예고했으며, 전문은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자료실이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코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하절기 가금류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

세척·소독 철저히 해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하절기 닭·오리고기 등 성수기를 맞아 가금류 운반차량에 의한 오폐수 및 배설물의 외부 유출시 일반 차량 및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어 이들 가금류 운반차량으로 인한 질병 전파와 배설물의 외부 유출 등에 따른 혐오감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운반차량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회원사에서는 사육농가 및 소속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 시·도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관련



점검과 위반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협조 요청

#### 신종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방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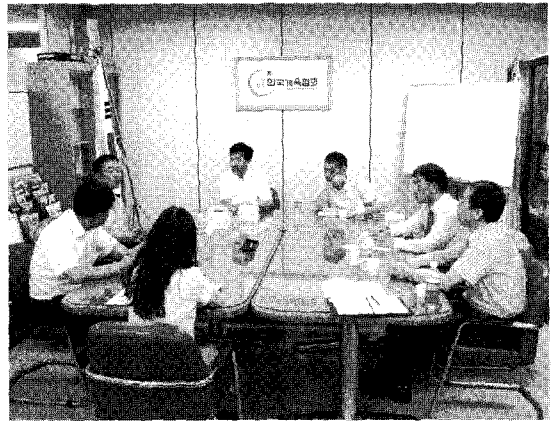
또 최근 아르헨티나의 양돈농가에서 감염자와 돼지의 접촉을 통한 전파로 추정되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발생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A의 국내 유입방지 및 가축으로의 전파를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 각 시·도 및 관련 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본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가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돼지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출입자 통제 및 소독강화, 농장 종사자의 해외 여행 및 해외 여행객의 농장 방문 자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농가 예찰 강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편집위원회 개최

#### 8, 9월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7월 1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 도 제4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월간 닭고기' 전월호 평가와 아울러 8, 9월호 편집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8월호, 9월호는 각각 여름철 성수기, 구구데이가 속한 달이므로 무엇보다 닭고기 소비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으로 기획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img alt="chicken icon" data-bbox="685 685 710 700"/>

8월 13일은 말복입니다.

보양식 닭요리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세요!

